

배포
2026.4.30.(목)

후속 보도자료

보도
2026.4.30.(목)
즉시

제목 부당월급 · 회사이사겸직 · 교수탄압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 규탄 기자회견 총 13 면

발신: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문의: 민교협 사무국 차장 조희원(010-9126-0510)

교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보도로 우리나라 교육정상화에 기여해 오며 불철주야 정론직필을 해 오신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는 광상도로 시작된 평택대 사유화 주도 이계안 이사장의 이사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종합감사 실시하라!”

부당월급 · 회사이사겸직 · 교수탄압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6년 4월 29일(수) 14:40-15:00

장소: 국회 소통관

주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 · 민교협 · 국교조 · 비정규교수노조 · 대학원생노조 · 공공성 강화평택대추진연대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등 참가단체는 ① 정관에도 이사회 의결에도 없는 ‘부당월급’을 14개월 간 셀프 수령하고 ② 학교법인 이사장이 외부 재단·기업의 상임이사·사내이사를 3중으로 겸직하면서 이해상충 구조에 놓여 있으며 ③ 정보공개 청구 교수를 협박·강요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형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반복하는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에 대해, 교육부가 이사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참가단체는 현 평택대 사유화 구조가 2020년 국민의힘 광상도 전 국회의원의 제382회 국회 교육위원회 ‘평택대 사안’ 단독 언급을 기점으로, 1기 임시이사가 2기 임시이사로 교체되고, 김삼환 목사(명성교회)-윤석열 전 대통령 측사(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대독)-명성교회 교인 법인사무국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참가단체는 2012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2010년도 교원임용 부정행위가 공식 적발되었음에도 장기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2025.8.14. 시행)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근거한 임용 취소·재조사 요청에 교육부가 “대학당국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점, 셀프보수 시정명령(2024.1.10.) 이후에도 이사 승인 취소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교육부의 구조적 직무유기를 규탄했다.

[참고1] 이계안 이사장 승인취소 및 종합감사 실시 근거 요약

출처 : 교육부·평택대·언론보도(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정리)

- **부당월급수령 기간** : 14개월(정관·이사회 의결 근거 없음) — 교육부 시정명령 후 사후 '뒷수습' 이사회 개최
- **소송 현황** : 법인·대학 관련 총 15건, 소송가액 15.1억 원(2025.2말 기준 내부감사). 교원소청위 상대 행정소송 5건, 1심 4건 패소 후 항소·상고
- **법인 수익용 재산** : 광화문 피어선빌딩 등 시가 약 1,300억 원 — 전국 상위권 자생력 보유
- **기부금 우회** : 세코(SECO) 재정기여 기부금 중 12억 원이 법인(법인회계)→대학(교비회계) 비정상 경로 입금, 별도 10억 원은 민사소송용 '잠정 입금'
- **겸직 구조** :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 + 하이리움산업(주) 사내이사·이사회 의장 +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3자 MOA 2026.3.12. 체결) + 평택시 수소특화단지 추진단장
- **교육부 적발** : 2012년 종합감사에서 2010년도 교원임용 부정행위 지적 — 현재까지 임용 취소·시정 미이행

[참고2] 광상도-평택대-김삼환/이봉관-윤석열, 이계안 타임라인

출처 : 교육부·국회 회의록·법원 판결·언론보도(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정리)

연월일	내용	비고
2017.7.26.	평택대 교수들,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 제기	원고: 교수회 대표 외 선재원 교수
2018.8.2.	교육부, 김삼환(명성교회) 이사 등 제청 이봉관(서희건설) 이사 승인 거부	평택대 이사회 회의록(170회)
2018.10.11.	서울고등법원, 평택대 개방이사 불법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2719
2018.10.22.	교육부, 김삼환(명성교회) 평택대 이사장 등 9인 이사 승인 취소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15045
2018.11.19.	교육부, 평택대 1기 임시이사 9인 파견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2019.2.14.	대법원, 평택대 개방이사 불법 확정	대법원 2018다281142
2019.3.14.	평택대 1기 임시이사, 비리 이사장 자녀 3명 해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2020.9.22.	광상도(국민의힘), 국정감사 준비 최종점검 회의에서 '평택대 사안' 단독 언급	제382회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2020.11.19.	교육부, 2기 임시이사 9인 파견	현 정이사 김영미·김우영 등
2022.6.26.	윤석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행사 축사(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대독)	시사타임즈 2022.6.27.
2022.11.19.	교육부, 9인 정이사 승인	법인 사무국장: 명성교회 교인
2024.1.10.	교육부,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 '셀프보수' 시정명령	대학경영혁신지원과-97
2024.3.31.	김삼환 목사, 명성교회 예배 참석 윤석열 상찬	대통령비서실 보도자료·뉴스앤조이
2024.9.30.	이계안 이사장, 정보공개 요청 교수 협박·강요 공문	평택대 법인 공문 피어션824
2024.12.4.	내란수괴 윤석열 축복기도 김삼환/김장환 목사 재조명	평화나무 2024.12.4.
2025.8.14.	국회, 임용 부정행위 임용취소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5(교육공무원법 제11조 준용)
2026.1.26.	평택대 법인, 교원소청위 재심결과 대법원 상고	법률닷컴 2026.1.26.
2026.2.2.	민교협 교육공공성특위, 교육부에 교원임용 부정행위 시정 요구	국민신문고 1AA-2602-0034358
2026.3.12.	평택대-2.1지속가능재단-하이리움산업 3자 MOA 체결(수소·에너지)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입장문(2026.3.17.)
2026.3.18.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 기업 이사 겸직 특혜 의혹	신문고뉴스 2026.3.18.
2026.3.20.	교육부, 2012년 종합감사 적발(현 총장 교원임용 부정행위) 사항 조사하지 않고 대학당국 의견 첨부 답변	국민신문고 1AA-2602-0972824

기자회견 순서

일시: 2026년 4월 29일(수) 14:40-15:00

장소: 국회 소통관

주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민교협·국교조·비정규교수노조·대학원생노조·공공성강화평택
대추진연대

1. 사회 및 경과보고

- 선재원 민교협 교육공공성강화특별위원장

2. 국회의원 인사 및 기자회견 취지발표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3. 대학공공성강화 촉구 발언

- 남중용 전국교수연대회의 상임의장
- 박철용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공동집행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김선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 배성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공회대지회장
- 이준영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장

5. 질의응답

부당월급 · 회사이사겸직 · 교수탄압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 규탄 기자회견

“교육부는 광상으로 시작된 평택대 사유화 주도 이계안 이사장의 이사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종합감사 실시하라!”

오늘 우리는 평택대학교를 무대로 벌어지고 있는 사학 사유화와 공적 감독체계의 붕괴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은 정관에도 이사회 의결에도 없는 이른바 ‘부당월급’을 14개월간 수령했고, 학교법인 이사장 지위에 더해 외부 기업의 상임이사·사내이사를 중첩해 맡으며 구조적 이해상충 위에 서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수를 협박·강요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무효 결정에도 대형로펌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요건을 갖춘 교원의 승진을 반복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비판하는 구성원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2020년 국민의힘 광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시작되어 김삼환 목사(명성교회)의 그림자 아래서 완성된 ‘평택대 사유화 프로젝트’의 결과이며,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해 왔다.

1. 부당 월급·회사이사 겸직 - 초유의 이사 배임·횡령 혐의를 규탄한다

가. 근거 없는 ‘셀프보수’ 14개월, 이사 배임의 명백한 정황

이계안 이사장은 정관에도 없고 이사회 의결도 없는 ‘부당월급’을 14개월간 수령했다. 교육부가 2024년 1월 10일 셀프보수에 대한 시정명령(대학경영혁신지원과-97)을 내리자, 비로소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뒷수습’했다. 이사회 의결도 없는 금원을 수년에 걸쳐 집행한 것은 이사 전원의 배임이 강하게 의심되는 중대 사안이다. 직전 상임이사의 월급(240만 원)을 초과한 차액조차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사안을 단순한 보수 논란으로 축소할 수 없다.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평택대 법인의 대학 전입금 비율은 2022년 기준

0.5%로 전국 평균(4.2%)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사장 월급, 사무국장 월급, 교수 상대 소송용 대형로펌 변호사비 등 이전에는 없던 추가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법인사무국장 역대 연봉”이라는 현수막이 걸릴 정도로 법인은 대학에 거의 돈을 넣지 않으면서 교비·법인재정을 이사장 개인과 법인 실권자의 편익을 위해 소진하고 있다.

이동현 총장은 재정기탁자로 선정된 세코(SECO) 그룹 기부금 중 12억 원이 법인(법인회계)으로 입금되었다가 대학(교비회계)으로 재입금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인했으며, 별도로 "민사소송 건으로 인해 학교법인에 10억 원이 잠정 입금"되었다고도 밝혔다.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자금이 이동한 것에 대해 구성원 동의는 있었는가. 대학운영용 기부금을 법인운용을 위해 사용하도록 결정한 주체는 누구인가. 법인이 10억 원을 필요로 한 ‘민사소송’은 무엇이며 관련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가. 이에 대한 어떠한 공식 설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사장-외부재단-기업을 잇는 3중 겸직의 이해상충

이계안 이사장은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이자 상임이사를 겸직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구조를 교육기관에서 자행하고 있다. 자신이 설립한 2.1지속가능재단에서도 상임이사직을 유지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사임했고, 수소 관련 기업 하이리움산업(주)에서는 사내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평택시는 여기에 더해 ‘수소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이계안 이사장을 추진단장으로 위촉했다.

2026년 3월 12일, 평택대학교-2.1지속가능재단-하이리움산업(주)은 "녹색전환 및 지속가능한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A)"를 체결했다. 동일인이 3개 기관을 동시에 공식적 실질적 대표하는 구조에서, 이계안 이사장은 향후 재산·용역 거래의 쌍방 당사자를 동시에 대표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사는 해당 안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이해상반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해 왔다. 이는 ‘의심’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정된 이해충돌이자 배임 위험이다.

더욱이 이계안 이사장은 과거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현대카드·현대캐피탈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한 현대그룹 최고경영진 출신이며, 하이리움산업 대표는 현대자동차 기술고문을 지낸 이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대학자금이 연루될 수 있는 수소특화단지 사업과 3자 MOA가 비공개 진행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다. 교수 탄압과 천문학적 소송비용

이계안 이사장은 비판하는 구성원에게는 소송을, 동조하지 않는 교수에게는 승진 누락을 무기로 썼다. 구성원이 밝혀낸 구재단·이사장 비리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내 최대 대형로펌을 선임해 교수 개인을 상대로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2심 패소에도 2026년 2월 26일 항소했다. 2024년 내부감사에 따르면 2025년 2월말 기준 법인·대학 관련 소송은 총 15건, 소송가액 15.1억 원에 이른다. 그중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대 행정소송만 5건이며, 4건은 1심에서 법인이 패소했음에도 반복 항소했다.

같은 시기 법인은 교직원에게 재정난을 이유로 기부를 요청했다. 교수들은 10년 이상 동결된 끝에 어렵게 보상받은 보수 중 일부를 기부했다. 승진요건이 충족된 교수들을 작년에는 이사회에서 누락시켰고 올해에는 총장이 제청하지 않았다. 올해 승진누락된 교수 4명은 동시에 교원소청을 청구한 상태이다. 구성원의 땀은 소송비로 녹이고, 기부로 메우고, 승진 보류로 길들이는 ‘사유화된 사학 경영’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2. 광상도로 시작되어 김삼환 목사(명성교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평택대 사유화

가. 출발점 - 2020년 광상도 전 의원의 ‘평택대’ 단독 언급

국민의힘 광상도 전 국회의원은 초중고 및 고등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전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 준비 최종 점검 회의에서 ‘평택대’ 사안만을 특별히 언급했다(제382회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2020.9.22.). 전국 수백 개 학교 중 유독 평택대 하나만을 지목한 발언은, 이후 평택대 이사회 구조가 급격히 바뀌는 출발점이 되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발언 직후 1기 관선이사 전원이 교육부 주도로 2기 관선이사로 교체되었다(2020.11.19.). 주목해야 할 점은, 직전 시점까지 교육부 2018년 임원 승인 취소(2018.10.22. 사립대학정책과-15045), 2018년 11월 1기 임시이사 9인 파견, 2019년 1기 임시이사에 의한 비리 이사장 자녀 3명 해임 등 구재단 정리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흐름은 2020년 국감을 전후로 돌연 방향이 틀어졌다.

나. 연결고리 - 김삼환 목사(명성교회)-윤석열 축사-명성교회 교인 사무국장

2022년, 평택대(전 피어선대) 신학과 출신이자 평택대 이사장을 역임한 김삼환 목사(명성교회)가 자신의 명성교회에서 주재한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축사가 있었다(시사타임즈 2022.6.27.). 축사를 대독한 강승규 당시 시민사회수석(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교육부문을 담당했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2022.11.19. 교육부, 정이사 9인 승인).

현재 평택대 법인 사무국장은 명성교회 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4년 3월 31일 명성교회 예배 참석 윤석열(대통령비서실 보도자료 2024.3.31., 뉴스앤조이 2024.4.1.), 2024년 12월 4일 내란 수괴 윤석열 축복기도에 이름을 올린 김삼환·김장환 목사 재조명(평화나무 2024.12.4.) 등, 김삼환 목사는 평택대 사유화로 의심되는 정치·종교적 연결고리로 반복 거론되고 있다.

다. 완성 - '재정기여' 기업 인사·개방이사 구조를 통한 장악

2기 이사들과 교육부는 평택대가 시가 약 1,300억 원의 광화문 피어선빌딩 등 전국 상위권의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여 자생력이 충분함을 알면서도, 최소 기부 금액 200억 원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42억 원을 제시한 세코(SECO) 그룹을 '재정기여' 기업으로 선정해 이사회에 배치했다. 이 과정은 2022년 기획처장이었던 이동현 총장이 주도했으며, 당시 교수·직원·학생 등 구성원의 반대가 컸으나 서둘러 진행되었다.

이계안 이사장은 개방이사로 이사회 구성원이 된 뒤 호선으로 이사장에 선임되었고, 자신이 총장으로 임명한 이동현 총장과 함께 사학혁신지원사업 약속(총장 직선제 등)을 불이행하고, 기준 미달 기업을 '재정기여'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기부금 12억 원 법인 입금 경로·기부금 62억 원 사용 내역·교원소청위 상대 법률비용 지출내역 등 구성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모든 핵심 사항을 "경영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수에게는 공문(피어선824, 2024.9.30.)을 통해 청구를 못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했는데, 이는 형법 제 324조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소지를 포함한다.

곽상도(2020) → 관선이사 전격 교체(2020) → 김삼환 목사 명성교회 축사 전후 정이사체제 급물살(2022) → 명성교회 교인 법인사무국장 배치 → 개방이사 호선 → 이계안 이사장 체제(2023) → 기준미달 세코 '재정기여' 선정 → 셀프보수·대형로펌 소송·광화문 부지·하이리움 MOA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슬은, 단순한 개별 의혹이 아니라 "평택대 사유화"라는 하나의 기획임을 가리킨다. 교육부는 그 기획의 각 단계마다 관문을 여는 역할을 해 왔다.

3. 교육부에게 이사 승인 취소와 종합감사를 촉구한다

가. 2012년 종합감사 지적 사항의 14년 방치

교육부는 2012년 평택대학교 종합감사에서 2010년도 교원임용 과정의 심사 기준 위반 및 절차상 공정성 훼손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공식 확인·지적했다. 그러나 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임용 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실질적 시정조치는 14년간 이행되지 않았다.

2025년 8월 14일 개정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5는 임용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교협 교육공공성특위는 2026년 2월 2일 국민신문고(1AA-2602-0034358)를 통해 교육부에 교원임용 부정행위 시정을 공식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2026년 3월 20일 피감기관인 '대학당국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답변(국민신문고 1AA-2602-0972824)했다. 감사기관이 감사 대상의

의견을 방패 삼아 조사를 회피한 것은 감사 제도의 근본을 스스로 부정한 행위이다.

나. 셀프보수 시정명령 이후 이사 승인 취소 방기

교육부는 2024년 1월 10일 이계안 이사장의 셀프보수에 대해 시정명령(대학경영혁신지원과-97)을 내렸다. 시정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정관·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 월급을 수령한 사안이라면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를 검토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이사에 대한 승인 취소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고, 법인이 사후 이사회를 열어 '뒷수습'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했다.

2026년 1월 26일 평택대 법인은 교원소청위 재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다(법률닷컴 2026.1.26.). 1심 패소, 2심 패소, 소청위 재심 확인에도 불구하고 대형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이어가는 행태에 대해, 교육부는 법인 자금의 출처·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실상 포기했다. 평택대 교수들이 수년에 걸쳐 요구해 온 소송비용 출처 공개·교원소청위 상대 행정소송비용 예산/결산 내역 공개를 법인이 "경영비밀"로 거부하는 동안, 교육부는 단 한 번도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재정기여' 기업 인사와 개방이사 구조에 대한 감독 공백

교육부는 기준 미달 기업이 '재정기여' 기업으로 선정된 이유, 그 인사로 채워진 개방이사 구조의 적정성, 이계안 이사장의 학교법인 이사장-외부재단 당시 상임이사-하이리움산업 사내이사 3중 겸직 구조, 수소특화단지 추진단장이 가져올 이해충돌에 대해 사전 점검·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대학이 특정 개인과 기업의 위험한 실험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관할청이 방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정관·이사회 의결 없이 14개월간 셀프보수를 수령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외

부 재단·기업의 상임이사·사내이사를 중첩 겸직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2. 교육부는 평택대학교 및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2012년 종합감사 지적 사항(2010년도 교원임용 부정행위) 미이행,
셀프보수, 세코 기부금 12억 원 법인 우회 입금, 10억 원 민사소송 잠정 입금,
교원소청위 상대 법률비용, '재정기여' 기업 선정과정, 3자 MOA 이해충돌 구
조를 전면 감사하라.

3. 교육부는 2012년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교원임용 부정행위에 대해 개정 교
육공무원법 제11조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임용 취소 등 실질적 시
정조치를 이사장에게 요구하고, 피감기관 의견 첨부로 책임을 회피한 관련 공
직자를 문책하라.

4. 평택시와 감사원은 평택대 법인-2.1지속가능재단-하이리움산업-수소특화단
지 사업 사이의 구조적 이해충돌을 사전 점검하고, 본계약 체결 전까지 3자
MOA 전문과 부속문서를 공개하며, 이계안 이사장의 회피·배제 절차를 즉시
마련하라.

5. 국회는 소청위 결정에 대해 사립학교 법인이 반복 소송으로 결정을 무력화
하지 못하도록 국공립대학과 동일하게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법인의 교원 상
대 소송 항목 제한·소송비용 출처 공개·패소 시 구상권 청구 제도를 도입하라.

대학의 주인은 법인이 아니라 학문공동체와 시민이다. 우리는 광상도로 시작되
어 김삼환 목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평택대 사유화에 단호히 맞서고, 공공성
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연대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4월 29일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국공립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





**부는 각상도로 시작된 평택대 사유화
이계안 이사장의 이사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조하가나 실시하거니**

